



즉시 배포용: 2017 년 6 월 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빙엄턴의 코프만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 개관 발표

향후 10 년간 수백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브룸 카운티 사상 최초의 하이테크 비즈니스 인큐베이터(High-Tech Business Incubator)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청사진인 “Southern Tier Soaring” 계획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빙엄턴 다운타운에 소재한 코프만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브룸 카운티에 사상 최초로 도입된 이 시설은 미래에 하이테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신생 기업들을 위해 기업가의 생태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데 최대한 주력하는, 이 지역에서 개발된 Southern Tier Soaring 경제개발 계획의 전략 윤곽에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룸 카운티 및 이 지역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게임 체인저인 코프만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는 기업가가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21 세기 사업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술 인큐베이터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행정부는 미래를 위해 서던 티어의 성장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600 만 달러 이상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코프만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는 에너지, 마이크로 전자 공학, 의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 중 최대 12 개 기업에 하이테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이 시설은 홀리 스트리트(Hawley Street)와 캐롤 스트리트(Carroll Street)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습식 건식 연구실 뿐만 아니라 하이베이 실험실 및 협업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들은 에너지, 전자기기, 포장, 의료 등의 분야에서 연구소, 병원 스마트룸 시연 시설, 개발, 간단한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인큐베이터는 빙엄턴 대학교 재단(Binghamton University Foundation) 산하 비영리 단체인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주식회사(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 Inc.)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또한 기업가의 우수성 프로그램(Entrepreneurial Excellence program)에 뉴욕주립대학교 브룸 캠퍼스 (SUNY Broome)의 새로운 가교를 제공하는 본거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주식회사(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 Inc.)는 (i)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 700 만 달러, (ii) 뉴욕주립대학교 브룸 캠퍼스 (SUNY Broome)의 2020 챌린지 보조금(2020 Challenge Grant) 600 만 달러, (iii) 미국 경제 개발청(U.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으로부터 200 만 달러, (iv) 뉴욕주립대학교(SUNY) 연구 재단으로부터 200 만 달러, (v) 브룸 카운티 산업개발청(Broome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으로부터 200 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 인큐베이터가 이름을 따온 빙엄턴의 Koffman 가문은 미래의 프로그래밍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기부를 했습니다.

9 년 안에 이 인큐베이터는 건설 일자리 및 인큐베이터 직원, 하이테크 스타트업 및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s)를 통해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되며 그레이트 빙엄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졸업생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프만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의 Sheila Doyle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큐베이터가 건설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재정적인 토대를 조성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아울러 대학뿐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가 바라는 바를 지원하는 일에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Harvey Stenger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Andrew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비전을 공유하여 이 인큐베이터를 실현시키기 위해 협력한 주정부, 지방 정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재정적 지원은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프로그램과 NY SUNY 2020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우리 지역사회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향후 수십 년 동안 배당금을 지불하게 될 전략적 투자인 것입니다.”

뉴욕주립대학교 브룸 캠퍼스 (SUNY Broome)의 Kevin Drumm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 브룸 캠퍼스 (SUNY Broome) 및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는 코프만 서던 티어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Incubator)를 비롯하여 많은 프로젝트에서 자랑스러운 파트너 사이입니다. 우리의 학생 인큐베이터는 이 지역이 창의적이고 젊은 기업가들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며 미래의 훌륭한 새로운 사업 및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프만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는 지역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하여 보다 강력한 지역 경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이와 같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Nancy Zimpher 뉴욕주립대학교(SUNY)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 및 공공 연구 간의 이러한 협력은 서던 티어 지역,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금 유입의 혜택을 누릴 학생들을 위해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는 연구와 경제 발전을 신장시키기 위해 기울이시는 주지사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Fred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의 다운타운 센터(Downtown Center)는 빙엄턴의 도심에서 재생, 경제 개발, 기회 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의 개장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는 빙엄턴 다운타운의 중심부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프만 서던 티어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Incubator)는 이 지역 전체 기업가 정신의 문화 발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년 동안 저희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학계, 정부, 기업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인큐베이터는 협력관계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상적인 협력을 위해 주지사님과 모든 기금을 모아주신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ason Garnar 브룸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브룸 카운티에서 출발한 주요 기업의 목록을 보실 경우, 수십 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킬 이 시설에 관해 쉽게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Richard C. David 빙엄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프만 다운타운 인큐베이터(Koffman Downtown Incubator)는 빙엄턴의 중심 도시 인근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던 티어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재능있는 학생과 기업가들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빙엄턴시에 이러한 투자를 단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프만 서던 티어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적 발전 계획인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Binghamton), 존슨시티(Johnson City), 코닝(Corning)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 제공한 5억 달러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